

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, 수산저수지 보수공사 실시

윤 홍창빈 기자 | 승인 2024.06.14 18:02

고태민 의원 "태양광.풍력 등 주민소득 활용 검토해야"



수산저수지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. ©헤드라인제주

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는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수산저수지에 대해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.

지난 1960년대 준공한 수산저수지는 수산저수지는 제방 길이 약 420m, 높이는 9.3m에 달하는 시설로, 안전진단 결과 재해를 대비한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에 66억원을 투자해 내년까지 터파기 및 구조물 보강을 진행하고 있다.

한편 이 공사와 관련해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(애월읍갑)은 "수산저수지는 지역 유지인 문창유 선생이 연구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해 조성한 곳으로 지역역사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"며 "유산으로서의 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"고 말했다.

이어 "지역주민의 역사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저수지를 지역주민이 원하는 소득사업으로 태양광, 풍력, 관광자원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"이라고 말했다. <헤드라인제주>

저작권자 ©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홍창빈 기자